日서 찾는 성장동력… 韓 증권업계, 인수·제휴로 영토 확장

2024년 신NISA로 투자 저변 커져
미래에셋, 산코증권 지분 인수 추진
토스, 日 치어증권 지분 전량 인수



국내 증권업계가 해외 현지 고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CI 각 사·AI로 생성한 이미지

국내 증권업계가 해외 현지 고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데서 나아가 현지 증권사를 인수하거나 금융회사와 제휴해 영업 기반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미래에셋증권과 토스가 잇따라 인수에 나선 일본은 세제 지원을 바탕으로 젊은층부터 고령층까지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29일 미국 자회사를 통해 일본 오카산증권그룹 산하 산코증권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도 30일 해외사업 법인 토스글로벌을 통해 도카이도쿄파이낸셜그룹 산하 치어(CHEER)증권 지분 전량 인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미래는 자기매매 보강부터…토스는 모바일 증권사 선택

미래에셋증권은 산코증권의 기존 자기매매 사업을 보강한 뒤 개인고객 대상 리테일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기매매는 회사 자금으로 주식·채권 등을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을 강화하고 현지 운영 체계를 정비하면서 개인투자자로 고객층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주식 취득대금은 약 476억원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인수와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 미국 자회사에 총 120억엔, 약 1006억원을 출자한다. 인도 쉐어칸에 이어 일본에서도 현지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해 글로벌 투자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연결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SPA 체결은 일본 현지 사업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산코증권 기존 사업을 보강하면서 리테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스가 선택한 치어증권은 스마트폰으로 소액 주식거래와 투자신탁 서비스를 제공해온 회사다. 초보 투자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온 토스의 사업 방향과 접점이 있다. 닛케이가 보도한 인수금액은 약 40억엔, 약 340억원이다.

인수 주체는 토스증권이 아닌 비바리퍼블리카의 싱가포르 소재 해외사업 법인 토스글로벌이다. 토스증권과의 향후 연계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토스 관계자는 "치어증권이 초보 투자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 와 사업적 지향점이 같다고 판단해 인수를 결정했다"며 "현재 관계 당국의 인허가 등 선행조건 절차가 남아 있어 인수 마무리와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층도 투자시장으로…NISA가 넓힌 고객층

일본 시장의 기회는 투자에 나서는 고객을 확보해 장기적인 거래 관계로 연결하는 데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소액투자비과세제도인 NISA다. 정해진 한도 안에서 전용 계좌로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면 매매차익과 배당·분배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다.

일본은 2024년 신NISA를 도입하면서 비과세 보유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렸다. 연간 최대 360만엔, 취득금액 기준 총 1800만엔까지 비과세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자가 세금 부담을 덜고 자산을 오래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투자 저변은 고령층으로도 넓어지고 있다. 일본 금융청의 NISA 계좌 이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보유한 NISA 계좌는 신NISA 도입 전인 2023년 말 약 720만개에서 올해 6월 말 약 919만개로 늘었다. 2년 반 만에 약 200만개, 28%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층뿐 아니라 은퇴자산을 운용하는 고객까지 금융회사가 접근할 수 있는 수요층이 넓다는 의미다.

현지 금융회사와 손잡고 고객 접점을 확보하는 방식도 있다. 하나증권은 일본 캐피탈파트너스증권과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해 현지 고객의 한국 주식 거래를 지원한다. 일본 고객이 현지 증권사에 주문하면 하나증권이 국내 매매·결제를 맡는다. 직접 인수와는 달리 제휴사의 고객망에 국내 거래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다.

다만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곧 개별 회사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기존 금융회사와 경쟁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시스템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NISA 이용 확대 역시 각사의 고객 확보 성과로 얼마나 연결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미래에셋과 토스의 인수는 모두 거래 종결 전 단계다. 미래에셋은 리테일 사업의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을 마련해야 하고, 토스도 인수 이후 신규 서비스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고 치어증권의 현 거래체계나 리더십은 유지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의 글로벌 현지 사업 도전은 고무적이지만, 기반 확보가 실제 영업 확대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추가적인 검증·투자·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현대제철·롯데케미칼 등 151곳… 거래소, 저PBR 기업 공개

유가증권시장 96곳, 코스닥시장 55곳
맞춤형 PBR 개선 컨설팅 제공 예정

현대제철과 태광산업, 롯데케미칼, 이마트 등이 한국거래소가 처음 공표하는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151곳에 포함됐다.

한국거래소는 2일 유가증권시장 96곳, 코스닥시장 55곳 등 총 151곳을 저PBR 기업으로 선정해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장기간 저평가된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PBR 기업은 시장과 업종별 PBR 분포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에 따라 기업을 11개 업종으로 구분한 뒤 유가증권시장은 업종별 PBR 하위 25%, 코스닥시장은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최근 6개 반기 연속 또는 최근 7개 반기 중 6개 반기 동안 저PBR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선정 대상이다.

이번 명단에는 철강·화학·유통 등 전통 산업을 비롯해 금융·헬스케어·정보기술(IT)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포함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현대제철의 PBR이 0.19배로 집계됐으며 태광산업은 0.23배를 기록했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은 0.18배, 롯데쇼핑은 0.17배였다. 이마트와 롯데하이마트도 각각 0.15배로 명단에 포함됐다.

금융업종에서는 한화생명이 0.27배, 흥국화재가 0.20배를 기록했다. 증권사 중에서는 DB증권이 0.33배, 현대차증권이 0.31배로 집계됐다. 이 밖에 영풍(0.17배), 한솔제지(0.23배), 휴스틸(0.19배)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별 기업의 PBR을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SUN&L이 0.06배로 가장 낮았고, 성창기업지주와 한국전자홀딩스가 각각 0.10배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앱토크롬이 0.07배로 가장 낮았다. 오션인더블유는 0.09배, SG&G는 0.10배였다. 소재 업종의 무림SP와 자유소비재 업종의 티케이케미칼은 각각 0.12배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산업재가 32곳으로 가장 많았다. 소재 업종이 29곳으로 뒤를 이었으며 정보기술(IT) 23곳, 자유소비재 22곳, 헬스케어 18곳 순이었다. 필수소비재는 15곳, 금융은 5곳, 커뮤니케이션은 4곳이었다. 에너지와 유틸리티, 부동산 업종에서도 각각 1곳이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거래소는 이번 명단 공개를 시작으로 저PBR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2027년에는 공표 대상 151곳 모두를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PBR 개선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업별 저PBR 원인을 분석하고 목표 설정과 개선 계획 수립 등을 돕겠다는 것이다.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가 저PBR 기업에 적극적으로 주주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행 점검을 통해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첫 공표를 계기로 저평가 기업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명단 공개 자체가 기업가치 개선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업들이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환원 정책을 실제로 이행하는지가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하은 기자 godhe@



전남 영암군 농촌마을 냉장고 전달식/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농촌마을에 냉장고 지원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영암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영암군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냉장고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행사에는 임철순 NH투자증권 ESG본부장과 우승희 영암군수 등이 참석했다.

냉장고는 영암군 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설치돼 주민들의 공동 식사와 식재료 보관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올해 8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농촌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신안·장흥·영덕·거창에 이어 영암이 다섯 번째 지원 지역이며, 나머지 3개 군에 대한 지원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은 지난해 말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바탕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초기 3년간 농촌 마을회관 등에 인덕션 1263대를 보급했으며, 2022년부터는 매년 냉장고 350여 대를 지원했다. 이 밖에도 농촌 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일손 돕기, 농가 숙원사업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임철순 본부장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고 머무는 생활의 중심인 만큼, 겨울을 앞두고 주민들의 일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네이버페이·토스에 묵힌 돈, 환급 쉬워진다

금감원 Q&A

빅테크 3사 안내·환급 절차 개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 돈을 충전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채 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결제나 송금을 위해 미리 충전한 돈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돈이 남아 있다는 사실조차 잊기 쉽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잠들어 있는 선불충전금을 더 쉽게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 3개사와 함께 장기 미사용 선불충전금의 안내와 환급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페이·머니형 선불은 일정 금액을 미리 충전한 뒤 여러 가맹점에서 결제하거나 송금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그만큼 충전한 돈을 잊고 방치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동안에는 선불충전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부터 3회 이상 안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효기간이 10년이라면 사실상 약 10년 가까이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충전하거나 사용한 지 1년 또는 2년 이상 지난 선불충전금을 장기 미사용 선불로 분류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돈이 있다면 매년 한 차례 이상 잔액과 유효기간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는 네이버톡톡이나 카카오 알림톡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이뤄집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던 페이 서비스에서 알림이 왔다면 남아 있는 충전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환급도 한결 편리해집니다. 이전에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환급 메뉴를 직접 찾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잔액 안내와 함께 환급 방법도 제공됩니다. 안내받은 환급 메뉴를 이용하면 남아 있는 페이·머니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메시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선불충전금 환급을 빌미로 개인정보나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메시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앱 알림이나 알림톡이 아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이메일에서 환급을 이유로 계좌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응하지 마세요. 특히 의심스러운 링크를 누르기보다는 해당 페이 서비스의 공식 앱에 직접 접속해 잔액과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간편결제 서비스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잊고 있던 충전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허정윤 기자